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24.(일) 11:00,
(지면) 2024. 11. 25.(월) 조간

배포 2024. 11. 22.(금) 오후

아시아지역 해적퇴치 위해 17개국이 한자리에

- 해수부, 인천서 닷새간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관리자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 CBSOM : Capacity Building Senior Officers' Meeting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결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아시아 해적 발생(건) : ('19) 62 → ('20) 76 → ('21) 59 → ('22) 70 → ('23) 75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결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044-200-5857)

□ 협정 개요

- (명칭) 아시아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 협력 협정(약칭 ‘아시아해적퇴치협정’)
 -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 협정 채택('04.11.11) → 우리나라 가입('06.4.7) → 협정 발효('06.9.4)
- (체약국) 아세안 8개국* 및 韓, 中, 日,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등 **21개국**
 - * ASEAN(10) : 체약국 8(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미체약국 2(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정부간 회의체) 관리이사회(국장급, 매년), 관리자급 회의(과장급, 매년)
- (운영조직) ReCAAP-ISC(Information Sharing Centre, 정보공유센터)

□ ReCAAP-ISC 구성 및 기능 ※ '06.11.29 개설, 싱가포르 소재

- (구성) 사무국장* 외 운영/조사/교육/행정부 직원 등 총 **16명**
 - * Krisnaswamy Natarajan(인도, 1961년생, 前해안경비대 국장, '22.4.1.~'25.3.31)
- (기능) 체약국간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방지 역량 강화 등
 - * ReCAAP 관련 사무국(Secretariat) 기능 수행

□ 우리나라 활동 현황

- 관리이사회 부의장직 수행(Governor*, '11.4~'13.3)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역할 수행
- ISC 운영인력 및 기여금 지원 중